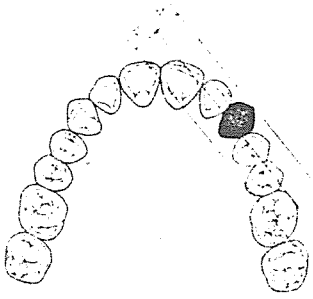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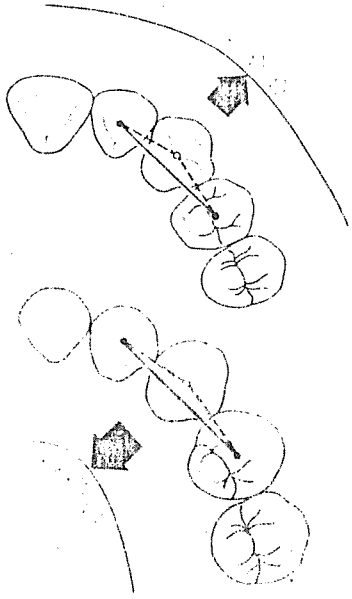
fulcrum line(×)이 되고, 이것과 중절치의 切緣까지의 거리(A)가 lever arm이 된다. 이 lever의 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lever arm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리(B) 만큼 지대치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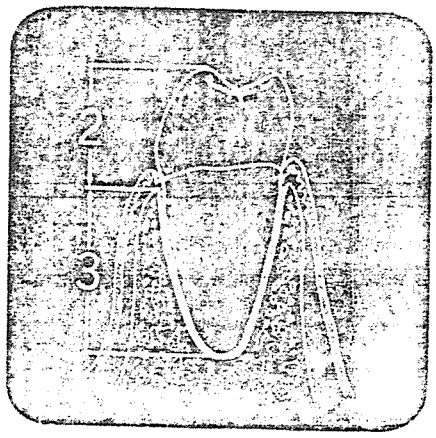
상악 견치는 치열의 curve 부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견치결손의 증례에서는 지대치의 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.

하악의 치열궁은 상악보다 그 만곡도가 완만하여 lever arm이 상악의 경우 보다도 짧으며 상악bridge가 lever의 작용에 의해 협측(외부)으로 힘이 가해지는데 반해, 하악의 경우는 설측(내부)으로 힘이 가해지므로 하악에서는 상악만큼 fulcrum line을 고려 할 필요가 없다(그림 5, 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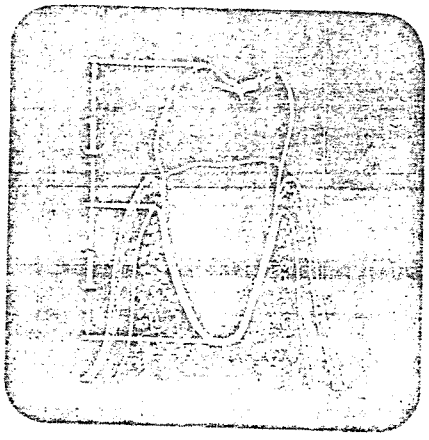
③ 치관-치근 비율(crown-root Ratio)

치조골내에 식립된 치근의 길이는 지대치의 하중부담능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. 이 비율을 결정할 때는 X-선 사진의 영상에서 치조골내 식립되어 있는 부분을 치근으로 하고, 치조골면 상방에 있는 부분을 치관으로 가정한다. 치관-치근 비율은 결손부가 큰 증례에 따라서더욱더 면밀히검사 되어야한다(그림 7).



齒冠齒根比率 1 : 1.5

치관-치근 비율은 1對2가 이상적이나 단일지대치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1對1.5가 필요하다.



齒冠齒根比率 1 : 1

치관-치근 비율이 1對1인 경우는 지대치의 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.